

9월은 '독서의 달' ... 4~6일 **대한민국독서대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대면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 교육청 등에서도 비대면 운영
독서문화 진흥 위해 노력한 자들에 '독서문화상' 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지자체, 교육청, 도서관, 학교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들을 운영한다.

올해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4~6일 제주시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부터 시작된다. 독서대전에서는 출판사와 동네책방이 함께 독서 행사를 진행하는 '1사 1방', 제주도 내 식재료를 활용해 문화 작품 속 음식을 만들어 보는 '지금 우리, 책을 맛보다!' 등 제주도의 특색이 반영된 비대면 독서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시대, 독서의 가치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독서 학술대회(9월 4일)와 전국 독서동아리연합회(9월 5일)는 독서대전 누리집(koreaf.kipia.or.kr)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도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해군의 독서 행사 '부대원 도서 추천 릴레이'를 통해 군 부대원 간 도서를 영

상으로 추천하고 댓글로 감상평을 적어 추천 도서를 공유한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독후감 경진대회 '책 읽는 나, 꿈꾸는 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시와 학술대회, 토론회, 책콘서트 등 같은 독서 행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서울 양재도서관 '온라인 그림책 콘서트' ▲부산 시민도서관의 '독서의 달에는 독서를!-9월 한 달 매일 30분 책 읽기 도전' 캠페인 ▲대구 달성도서관의 '조물조물 다이어와이(D.I.Y.) 그림책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독서의 달' 문화행사 관련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문체부 장관 표창 20명 등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 총 24명에게 '독서문화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이기숙 한국독서문화재단 이사장이 받는다. 이 이사장은 한국독서문화재단과 작은도서관 클라리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도와 독서치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그림책을 매개로 한 창작 아동극을 통해 어린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남부 알강달강 동극단, 놀이문화교육공동체 협동조합을 설립해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한 김주원 놀이문화교육공동체협동조합 놀라잡이 대표,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진흥에 기여한 김현아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등이 받는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장덕도서관, 황성군립도서관, 세광고등학교 등 20명(단체)에게 수여한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대한민국독서대전을 개최할 기초지자체로 부산광역시 북구를 선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다양한 '독서의 달' 비대면 문화행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독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마이산 북부 보고... 특별한 선물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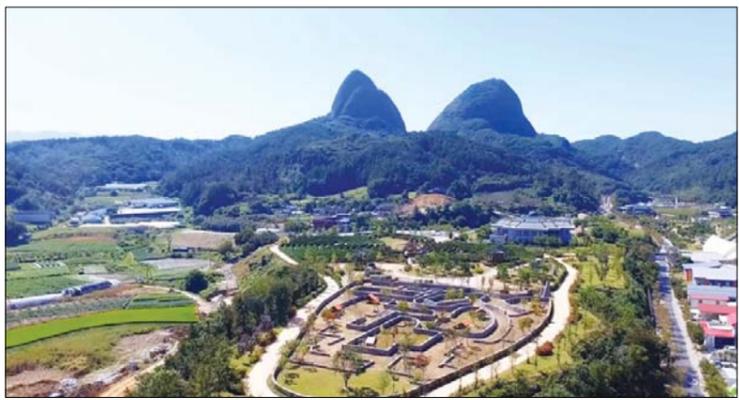
진안군, 오늘부터 '스탬프투어'
코스는 산약초타운 등 6곳

진안군은 마이산 북부에 조성된 관광단지와의 주요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이산북부 스탬프투어'를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마이산북부의 주요 명소 6곳을 방문한 후 활동지에 인증 도장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관광프로그램으로, 마이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진안군 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해 시행한다.

스탬프투어 코스는 ▲산약초타운 ▲홍삼산과 ▲돼지문화체험관 ▲가위 박물관 ▲명인명품관 ▲마이산북부 연인의 길이며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기념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방법은 마이산북부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투어 활동지를 배부 받아 마이산 상가를 이용(3,000원 이상)하고 위 6곳의 관광지를 방문한 후 관광지 앞에 있는 스탬프함에



마이산 북부 전경

있는 도장을 찍어 다시 관광안내소에 제출하면 선물로 준비한 전북투어패스카드를 받으면 된다.

진안군은 스탬프투어를 통해 코로나19로 주춤한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안계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스탬프투어를 통해 마이산에서의 색다른 즐거움과 여행의 소소한 재미를 더하여 많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교육 · 지역 · 삶의 비전 제시

소양중 추창훈 교감
'로컬이 미래다' 출간



추 작가는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나? 크게 세 집단이라고 전했다. 첫째, 지역학교의 선생님들과 관리자이다. 구구절절 공감하며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학교공동체와 사회경제적 활동가들이다. 학생교육에 본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들, 특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이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일이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추 작가는 코로나19 이후 길을 잃고 있는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마을과 지역 중심의 교육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완주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협동조합처럼 경제활동도 공동체와 협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을 살리면 아이들이 살고, 아이들이 살면 마을이 산다. 마을이 살면 학교가 산다.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풀어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소양중학교 추창훈 교감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지역, 삶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책 '로컬이 미래다'(에듀넷, 2020)을 펴냈다. 추 교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살아갈 여건을 만들어갈 때 침체된 지역의 삶과 교육이 상상할 수 있음을 통찰했다.

저자 추창훈 교감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서울로 가는 대열'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출발은 지역의 삶과 가치를 담은 학교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 지역의 전면적인 협업이다. 나아가 따뜻한 선순환의 경제구조와 양질의 일자리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추 저자는 교육의 소멸은 지역의 소멸을 앞당긴다. 지역이 소멸하면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소멸한다. 교육을 살려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양자는 공동운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 지역을 어떻게 답을 수 있는지, 지역은 교육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혁신교육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는 그 답을 바로 찾아냈다.

우리동네 주거취약계층에 '희망의 손길'

부안문화원 풍경소리 시낭송반
수해성금 기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안군은 최근 긴 장마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주거취약계층에게 수해 성금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대상가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로 수년간 집안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약취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장마로 인한 곰팡이, 해충으로 생활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안군은 부안문화원 풍경소리 시낭송반에서 수해피해 주민에게 기탁한 성금 50만원으로 도배 및 장판을 지원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중증장애인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최정춘 시낭송반 회장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후에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